



---

시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 튀니지, 몰타, 룩셈부르크, 독일 -

---



**수 원 시**

# 목 차

I. 연수개요 .....	3
II. 방문도시 개요 .....	7
III. 연수결과 .....	16
1. 기업지원 분야 .....	16
① 몰타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	16
② 독일 드레스덴 첨단산업단지 .....	20
2. 미술관 분야 .....	24
① 드레스덴 미술관(舊 거장 회화관) .....	24
② 드레스덴 엘버티눔 미술관 .....	26
③ 베를린 신 국립미술관 .....	29
④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	32
3. 박물관 분야 .....	35
① 튀니지 바르도 국립박물관 .....	35
② 튀니지 카르타고 국립박물관 .....	37
③ 룩셈부르크시 역사박물관 .....	39
4. 관광 분야 .....	42
① 교통시스템 개선방안 .....	42
② 해설서비스 개선방안 .....	50
③ 편의시설 개선방안 .....	54
④ 관광프로그램 개선방안 .....	56
수 기타 개선방안 .....	60

- **방문기간** : 2014. 8. 22.(금) ~ 8. 31.(일) [8박10일]
- **방문국가** : 독일, 튀니지, 몰타, 룩셈부르크
- **방문인원** : 10명(단장-제1부시장)
  - 수원시 (8명) - 제1부시장, 정책기획과장 및 관련공무원
  - 산하기관(2명) - 시정연구원 1, 국제교류센터 통역 1
- **목 적**
  -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기업지원 시스템 및 지원정책을 벤치마킹 하여 첨단산업단지 개발, 중소기업 육성시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밀집 지역 운영시스템 조사·연구
  - 우리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녹색첨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관련 선진사례 수집
  -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사회 공헌 역할 등 우수사례 수집을 통해 우리시 위상에 걸 맞는 미술관 개관 및 운영
  -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광컨텐츠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컨텐츠 개발 및 우수사례 수집
  - 수원비행장 이전 종전부지 친환경 미래 첨단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선진사례 수집 및 용도폐지 현장방문

## □ 활용계획

- 선진 기업지원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기업육성 정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업지원 처리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 제시
-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선진 기업지원 시스템 최근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다각적으로 시정 정책에 도입
- 각 기관별 중점 육성시책 및 우수시책 시정접목
- 중앙과 지방정부의 중복된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기업지원 극대화 방안 모색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국가별 관광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관광아이템 개발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도모
-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정책 제안
- 미술관 내·외부 동선 등 효율적인 시설 공간 배치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우수사례 우리시 접목으로 타 미술관과 차별화된 미술관 개관 및 운영
- 시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구성과 운영사례 수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박물관 및 미술관)
- 시정전반에 대한 도시별 우수사례 수집으로 접목가능사례 시정 반영 및 정책제안

## 연수단 명단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주 요 임 무
1	행정지원과	제1부시장	전태현	남	◦ 방문단 대표 및 총괄지휘
2	정책기획과	과장	이용영	남	◦ 방문단 운영 및 조정
3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장	강운배	남	◦ 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밀집 지역 운영시스템 조사·연구 ◦ 기업투자 유치 노력 및 지원현황 등 자료수집 ◦ 우리시 정책 접목가능 사례 발굴
4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한동민	남	◦ 박물관 시설 구성 및 운영사례 수집 ◦ 차별화된 운영현황 및 지역시민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조사연구 ◦ 소장품 구입 및 보관 관리실태 조사 ◦ 우리시 정책 접목가능 사례 발굴
5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심규환	남	◦ 미술관 시설 구성 및 운영사례 수집 ◦ 차별화된 운영현황 및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조사연구 ◦ 소장품 구입 및 보관 관리실태 조사 ◦ 우리시 정책 접목가능 사례 발굴
6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주사	김애영	여	◦ 방문단 운영 및 조정 지원
7	행정지원과	지방행정 주사보	강남욱	남	◦ 방문단 일정 운영 및 지원
8	정책기획과	지방행정 주사보	김수정	여	◦ 국외여행 실무 ◦ 방문단 일정 운영 및 지원
9	수원시정 연구원	연구위원	송화성	여	◦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우수 관광콘텐츠 조사연구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수집 ◦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조사연구 ◦ 우리시 접목 가능 정책발굴 ◦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작성
10	국제교류센터	주임	한지수	여	◦ 통역

# 일 정 표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제1일차 8/22(금)	인 천 프랑크푸르트 튀 니 스	OZ 541 LH 1326 전용차량	12:30 17:00 22:15 22:35	인천 출발 (10H 30M)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2H 20M) 튀니스 공항 도착하여 호텔 체크인 및 투숙
제2일차 8/23(토)	튀 니 스	전용차량	09:00 14:00 17:00	현장시찰 : 바르도 국립 박물관 시찰 -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유산 운영관리 사례 수집 현장시찰 : 카르타고 국립 박물관 시찰 -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유산 운영관리 사례 수집 현장시찰 : 세계문화유산 메디나(Medina) 시찰 -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유산 운영관리 사례 수집
제3일차 8/24(일)	튀 니 스 몰 타	전용차량 UG 1300 전용차량	07:30 10:15 12:25 14:30 16:00	호텔로비에서 공항으로 이동 튀니스 공항 출발 (1H 10M) 몰타 공항 도착 현장시찰 : 세계문화유산 음디나(Mdina) 시찰 -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유산 운영관리 사례 수집 몰타 발레타 시티 문화탐방
제4일차 8/25(월)	몰 타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전용차량 KM 328 전용차량 전용차량	09:00 15:25 18:10 20:00	공식방문 : 몰타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방문 -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브리핑 및 현장 방문 - 첨단산업클러스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노력 및 지원 정책 조 사·연구 등 몰타 공항 출발 (2H 45M)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프랑크푸르트-룩셈부르크 이동 (3H 30M)
제5일차 8/26(화)	룩셈부르크 베 를 린	전용차량 LG9473 전용차량	10:00 10:40 13:00 14:00 18:00 19:30	현장시찰 : 룩셈부르크 도시공원 시찰 현장시찰 : 국립역사박물관 시찰 아름다운 산책로 쉬멥드 라 코르니슈 견학 룩셈부르크 문화탐방 룩셈부르크 공항 출발 (1H 30M) 베를린 공항 도착
제6일차 8/27(수)	베 를 린 포 츠담 드레스덴	전용차량	09:00 10:00 13:00 14:00 17:00	베를린-포츠담 이동(1H) 현장시찰 : 상수시 궁전 시찰 현장시찰 : 포츠담 시민공원 시찰 포츠담-드레스덴 이동(3H) 드레스덴 문화탐방
제7일차 8/28(목)	드레스덴 베 를 린	전용차량	10:00 13:00 14:00	공식방문 : 드레스덴 첨단산업단지 방문 - 첨단산업단지 현장방문 - 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밀집 지역 운영시스템 조사·연구 등 드레스덴 문화탐방 드레스덴-베를린 이동(3H)
제8일차 8/29(금)	베 를 린	전용차량	09:00 11:00 14:00 15:30 16:30	베를린 문화탐방 현장시찰 : 베를린 문화포럼 丙신 국립미술관 시찰 현장시찰 : 베를린 페라기몬 박물관 현장시찰 : 예술가들의 공간 쿤스트하우스 타헬레스 현장시찰 : 템펠호프 공공 공원 시찰
제9일차 8/30(토)	베 를 린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LH 193 OZ 542	09:00 10:00 15:45 19:00	현장시찰 :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시찰 현장시찰 : 플란터베크 베를린 공항 출발 (1H 10M)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10H 20M)
제10일차 8/31(일)	인 천		12:20	인천국제공항도착

## 1. 튀니지 튀니스

## □ 도시개요

- 위 치 : 튀니지 북부
- 인 구 : 2,256,320명(2011년)
- 면 적 : 212km<sup>2</sup>
- 특 징
  - 지중해 남안의 주요항구이자 상업과 경제, 행정 중심지
  - 세계문화유산 풍부
- 홈페이지 : [www.commune-tunis.gov.tn](http://www.commune-tunis.gov.tn)

## □ 도시소개

이상적인 기후와 길고 부드러운 해안선을 가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는 아프리카 최북단의 도시로 역사는 BC 9세기에 시작되었다.

지금의 레바논 부근에 기지를 두고 지중해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인들의 일부가 이주하여, 현재의 튀니스 부근에 도시를 건설해서 카르타고 제국을 이룩했던 것이 그 시초이다.



한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튀니스 및 그 주변에는 카르타고와 로마 유적이 많다. 기원후 7세기 이후로는 이슬람교 문화가 형성되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서구화되어, 지금은 북아프리카 제일의 서구화된 도시이다. 튀니지언 블루라고 불리는 청색 창틀을 낀 가옥과 흰 벽이 햇살을 반사하고,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와 꽃이 만발한 공원, 테라스가 달린 카페 등은 남 프랑스를 연상시킨다.

평균 온도가 12-28도 사이의 10월에서 5월 사이가 가장 좋다. 이 시기에는 세일링과 서핑, 골프, 유적지를 탐사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제공한다. 3월에서 5월에 이르는 봄에는 튀니스 전역에 핀 야생화가 탐스럽고, 9월에서 12월에 이르는 가을은 따뜻한 바다와 황금빛 태양을 선사한다. 6월에서 8월까지의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며, 8월은 여름의 절정을 이룬다. 이다. 이런 최적의 날씨로 인해 튀니스는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러나 동양권에선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았다.

## ○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대도시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로마와 마주한 아프리카 튀니지아만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동쪽으로 15km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기원전 9세기 말 페니키아인들이 무역항구로 비옥한 땅위에 수립한 도시이다

천년동안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의 지배자로 200대가 넘는 전투함과 수많은 상선이 사람보함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로마와 함께 고대 지중해를 지배했던 카르타고는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100년이 넘는 세차레이 포에니 전쟁 끝에 700년의 지중해 지배를 로마에 넘겼다. 1차 포에니 전쟁의 하밀카르 바르카, 2차 전쟁에서의 한니발 등 명장수의 전쟁은 3차 포에니전쟁에서 로마의 장수 소스키피오를 끝으로 카르타고는 마침내 로마에 무너지고 만다, 전쟁에 패한 카르타고는 해외 영토를 모두 잃고 로마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옛페니키아 항구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로마시대의 유적지 등의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 ○ 시디 부 사이드(Sidi Bou Said) 민속마을

북부의 관광 도시로 튀니스 시내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옛 시가지 마을 시디 부 사이드는 건물들은 모두 벽면이 하얗고, 문과 창문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한다.

현대 추상회화의 시조인 스위스 화가 파울 클레(Paul Klee)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예술가들이 생활했으며, 현재도 예술가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활동한다. 일찍이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가 드나들었다는 오래된 카페도 유명하다.

## ○ 튀니스 메디나(Medina of Tunis)

수도 튀니스의 7세기에 건설된 옛 이슬람 시가지이다.

동서 길이 800m, 남북 길이 1천600m 규모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모스크, 신학교, 궁전 등 옛 영화를 엿보게 하는 기념물 700여 개가 남아 있다.

가장 유명한 건물은 ‘올리브 나무의 모스크’란 뜻을 지닌 지투나 모스크로 723년 튀니스를 수도로 정한 것을 기념해 130여 년에 걸쳐 건설됐다. 이 사원은 인근 카르타고 유적지에서 가져온 기둥 200여 개를 이용해 건축됐다. 사각형 첨탑에 외관이 형형색색의 타일로 장식돼 있어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럽다.

또 다르 알 베이(Dar-al-Bey) 궁전은 다양한 건축 양식이 결합된 건물로 유명하며, 1616년에 세워진 시디 유세프(Sidi Youssef) 모스크는 녹색 타일로 덮인 8각형 첨탑이 인상적이다.

## 2. 몰 타

### □ 도시개요

- 위 치 : 유럽 남부 지중해상
- 인 구 : 41만(2013년)
- 면 적 : 316km<sup>2</sup>
- 특 징
  - 두바이인터넷시티, 두바이미디어시티와 함께 개발되는 최첨단 정보 기술과 미디어 산업단지
  - 2007년 개발발표 2012년 완공예정
- 홈페이지 : <http://www.smartcity.ae/malta/>

### □ 도시소개

몰타는 아주 작은 섬으로 철도가 없다. 수돗물은 해수를 전기 분해하여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 미터를 25만 가구에 배치하고 에너지를 시각화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IBM은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IBM은 스마트 시티 지원책으로 스마트화를 목표로 세계 100 개 도시에 5000 만 달러 (약 40 억엔) 상당의 지원을 표명하고 11 년 들어 24개의 도시를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 몰타 조감도〉

### ○ 몰타섬의 수도 발레타(Valletta)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템플 기사단, 독일 기사단과 함께 세계 3대 기사단 중 하나인 성 요한 기사단의 본거지다. 성 요한 기사단은 11세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로 시작해 십자군전쟁 때 군사력을 갖춘 종교 기사단으로 거듭났다. 이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고 1530년 스페인 황제 찰스 3세는 당시 스페인령이던 몰타를 기사단에 하사했다.

나폴레옹이 침략한 1798년까지 이곳은 기사의 통치 아래 있었다. 이 때문에 발레타의 중심 볼거리 중에는 기사단과 관련된 유적이 많다.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성 요한 성당은 전 유럽에 걸쳐 초기 바로크 건축의 백미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화려하고 진귀한 볼거리가 많다. 남성적 느낌이 짙게 배어나는 외관과 다르게 내부 장식은 화려하고 우아하다. 벽면 전체는 온통 금과 은으로 조각돼 있고 성당 바닥 아래에는 몰타를 수호한 기사들의 무덤이 있다. 무덤 위에는 각 기사들의 업적과 일생을 재현한 모자이크 장식이 그려져 있어 그 화려함을 더한다. 성당 양 옆면으로는 각 나라에서 파송된 기사들의 예배실 8개가 늘어서 있다.

기사들은 자신이 소장한 예술품을 기부해 성당 내부를 장식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초기 바로크의 대표 화가인 카라바조가 기사들의 후원을 받아 그린 ‘세례 요한의 참수’다. 5m의 화폭에 명암 대비를 극명하게 그려낸 참수의 현장 앞에 서니 숨이 멎을 것 같은 위압감이 든다. 카라바조는 그림 하단에 세례 요한의 목에서 흐르는 피로 자신의 이름을 썼는데, 이는 모든 작품을 통틀어 그가 남긴 유일한 서명이다.

성 요한 성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랜드 마스터 팰리스는 1604년 기사단의 궁전으로 지어졌다. 지금은 기사단의 역사를 빼곡히 모아 전시한 박물관과 대통령궁을 겸해 사용하고 있다.

## ○ 시간을 박제한 도시, 음디나

기사단이 발레타로 입성하기 전, 로마 통치하에 있던 몰타의 수도는 음디나였다. 몰타 섬의 중앙,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이곳은 귀족의 도시이자 고요의 도시로 불린다. 9세기에 건설한 석회암 성벽의 말간 모랫빛이 세월의 흔적을 머금고 고풍스럽게 빛난다. 성곽 안으로 들어서면 좁은 골목길이 유선형으로 굽어 있다. 골목은 넓어졌다 좁아지기를 반복하며 굽이쳐 흐르는 개울을 닮았는데 이렇게 건설한 이유가 있다. 성곽으로 적이 침입할 경우 적의 마차 길을 끊고, 적이 쏜 화살과 총을 쉽게 피하고 숨기 위해서다.

다채로운 외형으로 미로처럼 연결된 골목골목은 기능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숨 막히게 아름답다. 1000년의 시간 동안 지중해의 강렬한 태양과 바람을 견디기 위해 외벽에 덧칠한 올리브기름이 라임 빛깔 석회암에 스며 은은한 광택을 발한다. 출입문, 문손잡이, 창틀과 창문까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고상하고 기품이 있다. 말 그대로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사물이 뿜어내는 특유의 아우라는 그 어떤 위대한 화가의 묘사로도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골목을 뚜벅뚜벅 걸으며 지중해의 바람과 태양 아래 몸을 맡기고 오감으로 느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 3. 룩셈부르크

#### □ 도시개요

- 위 치 : 유럽 북서부 위치(룩셈부르크수도)
- 인 구 : 94,034명(2011년)
- 면 적 : 2,586km<sup>2</sup>
- 특 징
  -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
  - 룩셈부르크 시를 둘러싼 오래된 요새 세계유산으로 지정
- 홈페이지 : <http://www.gouvernement.lu/>

#### □ 도시소개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수도이다. 페트뤼스 강(Pétrusse)이 알제트 강(Alzette)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북위 49도 36부, 동경 6도 8부에 위치하며 나라인 룩셈부르크와 구별하기 위해 룩셈부르크 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시의 중심부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및 시청사가 있다. 부도심에 있는 키르슈베르크에는 유럽 사법 재판소, 유럽 투자 은행 등의 유럽 연합의 기관, 룩셈부르크 대학, 라디오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또한 룩셈부르크 시를 둘러싼 오래된 요새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룩셈부르크는 그 위치 및 지리적 이유 때문에 역사 등에서 군사 전략 거점지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10세기 전후에 포크 성 주위에 요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4세기에 한층 더 강화되었다. 룩셈부르크 공작령은 독립한 이후에 중립을 주장했지만 요새는 1867년 해체될 때까지 남았다. 룩셈부르크의 이러한 중립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있었던 독일의 침입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 4. 독일 포츠담

### □ 도시 개요

- 위 치 : 중부, 베를린 남서쪽에 위치한 소도시
- 인 구 : 150,000명(2008년)
- 면 적 : 187.28km<sup>2</sup>,
- 특 징
  - 면적의 25%만 도시지역, 녹지대가 대부분, 20개의 호수와 강이 있음.
  - 3개 공립대학과 30개 이상 연구기관 위치
  - 1945년 포츠담 선언 발표
- 홈페이지 : [www.potsdam.de](http://www.potsdam.de)

### □ 도시소개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의 포츠담 광장은 동·서독 분단 시절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광장의 명칭은 베를린에서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브란덴부르크주의 주도(州都) 포츠담에서 유래했다.

포츠담의 꽃은 상수시(Sans souci·사진) 궁전이다. 상수시는 프랑스어로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예술과 철학을 사랑한 프리드리히 2세(1712~1786)가 손수 스케치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만들었다. ‘프로이센의 베르사유’라 불리지만 소박하고 푸근한 느낌으로 차별화된다. 왕의 초빙으로 프랑스 계몽



사상가 볼테르가 3년간 머물렀다는 ‘볼테르의 방’ 등이 볼거리다. 상수시를 시작으로 170여 년간 프로이센 왕후들이 끊임없이 건물을 짓고 조경을 가꿨다. 상수시 서쪽 1.5km 지점의 신궁전(1763~1769년 건립)은 독일 로코코 양식의 꽃으로 꼽힌다. 신고전주의 건축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남쪽 샤를로텐호프 성(1826~1829년)에는 3만7000개의 조각으로 치장했다는 ‘조개의 방’이 있다. 상수시 궁전으로 통칭되는 총 넓이 500ha의 150여 개 건축물이 통독 후인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포츠담 회담’으로 유명한 체칠리엔호프 궁전이 있다. 1917년 빌헬름 왕자와 체칠리에 왕비를 위해 신정원 안에 지은 프로이센 최후의 궁전이다. 영국 전원주택풍의 이 아담한 궁전에서 2차 대전 막바지인 1945년 7월 26일 미·영·중 정상들이 모였다. 이미 점령한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와 함께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논의됐다. 이 포츠담 선언에 소련도 추후 합의했다. 일본은 이를 거부하다가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야 받아들였고, 포츠담 선언에 담겼던 식민지 반환 원칙에 따라 한국은 독립을 맞았다.

## 5. 독일 드레스덴

### □ 도시 개요

- 위 치 : 동남쪽에 위치한 공업도시
- 인 구 : 529,781명 (2011년)
- 면 적 : 328.3km<sup>2</sup>
- 특 징
  - 17세기 이래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며 항공기, 광학기기의 공업발달
- 홈페이지 : <http://www.dresden.de/>

### □ 도시소개

베를린 남쪽으로 189km 떨어진 드레스덴은 ‘예술의 도시’, ‘독일의 피렌체’ 라는 별명을 지녔다. 엘베강 양쪽으로 펼쳐지는 격조 높은 건축물들은 1000년이 넘는 도시의 나이테를 짐작하게 한다.

2차 대전 막바지였던 1945. 2. 13.부터 사흘간 영·미 공군이 퍼부은 4000t의 폭탄이 도시를 덮었다 ‘드레스덴 공습’ 으로 불리는 융단폭격 으로 2만5000~5만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일각에선 20만 명 주장). 이와 함께 18세기 바로크 건축의 보석으로 일컬어졌던 시가지가 말 그대로 잿더미로 변했다.



당시 연합군은 드레스덴에 군수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습했다고 설명했다. 작센주의 주도 드레스덴은 19세기 독일의 교통·공업 중심지였다. 그럼에도 연합군이 주장한 군수 시설이 드레스덴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공습의 윤리 논란을 부른 이 사건 뒤 14주 만에 나치 독일은 연합군에 항복했다.

동독 공산정권하에서 방치됐던 드레스덴은 독일 통일 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도시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활기를 띠었다. 철저한 고증과 더불어 현대 기술을 응용했다. 미국·영국 등 20여 개국이 복원기금을 보탤다.

옛 흉터를 끌어안고 되살아난 건축물 가운데 특히 사랑받는 곳이 츠빙거 궁전(사진)이다. 아우구스트 2세 치하인 1711~1722년 완공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작센 왕국의 번영기를 오롯이 담아낸다. 내부에는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마돈나’ 를 비롯해 15~18세기 명화를 소장한 드레스덴국립미술관이 있다. 공습 당시 궁전은 파괴됐지만 미리 소개한 미술품은 화마를 면했다.

또 다른 상징적 건물이 18세기에 건립된 성모교회(Frauenkirche)다. 공습 이후 폐허가 된 교회 터를 밀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자는 안이 나왔지만 시민들이 저항했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세울 날을 꿈꾸며 화염에 그을린 돌들을 모아 보관했다. 그 간절한 소망이 2005년 결실을 맺어 마침내 둥근 돔이 위용을 되찾았다.

## 6.

## 독일 베를린

### □ 도시 개요

- 위 치 : 북동부에 위치한 독일 최대도시
- 인 구 : 3,520,061명(2011년)
- 면 적 : 891km<sup>2</sup>
- 특 징  
: 1991년 7월 새로 구성된 전독일 의회에서 통일독일의 수도로 결정되었으며, 최근 환경도시로 부각
- 홈페이지 : <http://www.berlin.de/>

### □ 도시소개

#### ○ 역 사

베를린은 15C 브란덴부르크 제국의 수도였으며 이후 18C초 프로이센 왕국, 19C 후반 비스마르크의 제 2독일제국의 수도였다. 2차 세계 대전이후 폐허가 된 베를린은 프랑스의 꼬르뷔지 등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이루어져 현대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20C 들어 학문 예술의 전성기를 맞아 유럽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다시 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은 신생 독일의 중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 산업 및 인종

주요 산업은 기계 엔지니어링, 화학, 안경공업, 의류 등의 경공업이 이며 패션 중심도시 중의 하나이다. 중부 유럽의 여러 인종이 뒤섞여 있는 도시로 게르만족, 프랑스어 위그노, 폴란드인, 보헤미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내심과 희생정신, 풍부한 유머와 위트를 지니고 있는 베를린인들은 동서 통일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된 시민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 □ 템펠호프 공원(Tempelhofer Feld)

- 공원개방 : 2010. 5월(공항폐쇄 2008. 10월)
- 면 적 : 약 3,550,000m<sup>2</sup>

공항 폐쇄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이었던 템펠호프 공항은 과거 냉전 당시 봉쇄당한 서베를린의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해주던 장소였다.



2008년 공항의 구조적 한계(짧은 활주로)와 도심부에 위치해 있었기에 도심 전역으로 적지 않은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로 폐쇄결정이 내려졌다. 동시에 베를린 신공항 사업이 계획되었고, 2008년 4월 공항을 다시 개장할지에 대하여 시민투표 결과 최종 폐쇄결정이 내려져 2008년 10월 공항은 폐쇄되었고 2010년 5월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광활한 크기로, 기존 공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23만 명이 방문하였고 여전히 수많은 베를리너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사랑받은 템펠호프 공원도 이 도시가 직면한 주거부족 등의 문제로 공원의 일부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난 2014. 5. 25 템펠호프 공원의 개발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정부의 개발안에 맞선 시민주도단체의 제안이 선택되었다

베를린의 첫 시민투표를 통해 폐쇄된 공항은 시민들의 공원이 되었고, 나름의 타당한 목적을 지닌 개발의 압력 앞에서 또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공원을 지켜냈다.

## 1. 기업지원분야 - 공식방문

## ① 몰타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 □ 방문개요

- 방문기관 : 몰타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 방문일시 : 2014. 8. 25.(월) 09시
- 주요업무 :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브리핑 및 현장 방문
- 방문목적 : 첨단산업클러스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노력 및 지원 정책 조사·연구

## □ 현 황

- 위 치 : 몰타 남부 칼카라 지역
- 개발기간 : 2008 ~ 2021년 [14년간]
- 면 적 : 36만㎡ (10만 9000평)
- 투자규모 : 2억 7500만 유로(4000억원)
- 주요시설 : ICT와 미디어, 상업, 숙박, 공공시설 등
- 두바이인터넷시티, 두바이미디어시티와 함께 개발되는 최첨단 정보 기술과 미디어 산업단지로 ICT업계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

## □ 연수내용

- 건립목표
  - 스마트시티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두바이 스마트시티는 ICT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매력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두바이 ‘인터넷·미디어시티’와 같은 첨단 IT·미디어 도시건설을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도시 전체를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첨단도시로 탈바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본 공간구성

- 몰타정부 1%, 테콤사 99%, 등 2억7500만 유로(약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업무시설 170,000㎡, 편의시설 200,000㎡, 주거시설 63,000㎡, 숙박시설 73,000㎡의 투자공간을 계획하고 있음.

※ 테콤사 : 두바이 국왕 셰이크 모하메드가 99.67% 지분 소유

- 현재는 업무시설 2개동과 주차시설 구비로 당초 계획된 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의 단지임

- 업무시설(현황)

- ▶ SCM01(일반사무실) : 10,050㎡
- ▶ SCM02 & SCM03(일반사무실) : 8,300㎡
- ▶ SCM01(Plug & Play Offices) : 350㎡
- ▶ SCM01(회의시설) : 250㎡
- ▶ 주차시설 : 6,000㎡

- 편의시설(현황)

- ▶ SCM02 & SCM03(상점) : 1,000㎡
- ▶ SCM04 & SCM05(외식단지) : 4,700㎡

○ 지중해가 펼쳐진 최고의 환경

- 몰타는 실제로 지중해 대표 휴양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고풍스러운 유적지와 섬나라 특유의 탁 트인 자연 경관이 장관을 이룬 천혜의 환경에 걸맞게 단지 앞이 지중해가 펼쳐진 맑고 깨끗한 공기가 휴양지 버금가는 자연 환경이다.

○ 업무시설, 주거 및 편의시설이 한곳에 어울어진 업무환경

- 단지가 계획된 시설을 모두 갖추고 기업체가 입주한다면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편의시설, 주거시설, 오락시설을 갖춘 최고의 업무단지가 될 것임.

○ 투자유치 전략

• 최적의 자연환경과 ICT 환경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정가로 임대료 감면과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는 없으나 최적의 환경과 ICT 환경을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 두바이 및 인도 코치 스마트시티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 기 설립 운영중인 두바이 및 인도 코치 스마트시티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입주기업은 8개 기업으로 Cisco, Hp, IBM, FTIAS, TMF, Heritage, LGA, Many Morer 가 있음.



몰타 스마트 시티 PT



몰타 스마트 시티 PT



몰타 스마트 시티

## □ 연수결과

### ○ 제언사항

- 투자유치는 두바이 및 인도 코치 스마트시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 투자유치 전략을 하고 있으나,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음.

### ○ 시사점 및 연계성 검토

- 최고의 환경을 갖춘 몰타 스마트시티
  - 몰타 스마트시티는 천혜의 자연적 환경속의 단지이나, 아직 미완의 단지이나, 향후 당초 계획된 정주시설, 편의시설, 업무 및 연구시설의 어우러진 입주 공간에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한다면 최적의 첨단단지가 될 것임.
- 스마트시티와의 비교분석 「서수원 R&D Science Park」 건립 및 투자유치
  - 스마트시티는 우리 시가 조성계획인 「서수원 R&D Science Park」 건립 구성안)과 비슷한 점이 많음.
  - 즉 단지내 정주시설, 편의시설, 지원시설, 기업 및 연구시설이 한 곳에 어우러진 공간구성으로 현재는 미완의 단지이나 향후 우리 시의 「서수원 R&D Science Park」 건립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교분석하여 입주자를 위한 최고의 인센티브는 최고의 환경과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컨셉을 지향하는 단지를 건립 및 투자유치에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기 건립 운영중인 두바이 및 인도 코치 스마트시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심도 있게 조명 분석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참고 : 「서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계획】

- 위 치 :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9년
- 면 적 : 357,487㎡(G·B 해제 : 347,470㎡)
- 도입시설 : R&D, 연구교육, 상업, 주거, 지원시설 및 의료시설 용지  
(단위:㎡)

총면적	공공시설/도로	R&D/연구교육	지원시설
357,487	157,012	175,138	25,337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수용방식 또는 사용방식)
- 사 업 비 : 230,000백만원

## 2 드레스덴 첨단산업단지

### □ 기관개요

- 방문기관 : 드레스덴 첨단산업단지
- 방문일시 : 2014. 8. 28.(목) 10시
- 주요업무 : 첨단산업단지 현장방문
- 방문목적 : 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의 기업밀집 지역 운영시스템 조사·연구
- 면 담 자 : Romy Heidrich <kontakt@tzdresden.de>

### □ 현 황

- 2차 대전 이후 붕괴된 산업기반 및 경제재건을 위해 1990년대 후반 하이테크 산업과 R&D 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테크노폴과 같은 전략화된 입지제공과 교육과 국제 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 추진
- 드레스덴시는 항공산업, 기계 및 플랜트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술 등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결합된 산업구조 보유
- 실리콘 작소니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유럽 내 최고의 반도체 및 유기 전자공학 클러스터로서 연구개발에서 시제품,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연구기관이 가치사슬 형성
- 또한 태양광 미래기술혁신센터의 “태양 공장 (Solar Factory) 2020” 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산업, 글로벌 수준의 나노기술, 분자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의 혁신능력은 국제과학중심지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됨
- 현재 프라운호퍼, 헤름홀츠, 라이프니쯔, 막스플랑크 연구회, 드레스덴 공과대학 등 4개 대형 연구기관과 대학 간 협업시스템으로 드레스덴만의 네트워크(DRESDENconcept) 구축

## □ 연수내용

### ○ 건립목표

- 독일 통일후 드레스덴시의 부흥과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훈련,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한 강성기업 육성, 실업률 해소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 수익 발생분 재투자

- 드레스덴 산업단지는 1990년 독일 통일후 드레스덴시, 대학, 투자은행, 기술자 각 25%의 동일 지분으로 2,000만유로(약 280억원)를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수익 발생분은 전액 재투자하고 있음.

### ○ 단지운영

- 기업체 입주는 임대임. 기업체는 총 68개 업체로 직원은 1명~200명 까지 다양하며, 1명~20명이 50%인 소규모 기업체가 주류를 이룸
-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는 인큐베이터, 기술개발,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함.
- 최고 7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입주기간이 경과하면 단지를 나와 이전해 함.

### ○ 국제업무 협력

- 최근 체코, 우크라이나, 대전 테크노파크와 우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음.



드레스덴 첨단산업단지



드레스덴 첨단산업단지 PT

## □ 연수결과

### ○ 시사점

- 창업 및 초기기업 육성지원 형태의 산업단지.
  - 우리 시 산업단지는 개별 기업체가 분양받아 회사를 건립 또는 이전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드레스덴 산업단지는 창업기업 성장기업에 임지를 임대하여 교육, 기술, 기술확장 및 사업화등을 지원하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단지를 나와 이전하는 형태임.
  - 즉, 우리시 권선구 고색동에 소재한 수원산업단지과 다른 형태의 산업단지이며, 우리 시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의 혼합 형태의 단지로 보면 될 것임. 우리 시의 분산된 지원센터를 통합한 산업단지이므로 우리시와 연계성 검토도 바람직함
-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 협력사업체
  - 드레스덴시, 관내 대학, 기술자, 은행이 25%씩 동일 지분을 투자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전도유망한 기업을 성장하게 도와주고 수익금 전액을 재투자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있음.

### ○ 연계성 검토

- 드레스덴 산업단지 운영방식 도입 검토
  - 우리 시의 분산 운영현황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대학 및 기업지원 기관에서 설립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

〈수원시 창업보육센터 현황〉

2014.6.1현재

(단위 : m<sup>2</sup>, 백만원)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지원액	운영 인력	입주 기업	기 능
서울대농생명과학대학교창업보육센터	팔달구 향교로 160	1,866	13.6	5	34	창업자 사무공간, 편의시설 제공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팔달구 행궁로 98	1,622	13.6	2	15	강소기업육성지원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장안구 서부로 2066	1,511	28	2	64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403	28	4	36	창업자 사무공간, 편의시설제공
경기벤처 창업보육센터	영통구 광교로 107	6,680	28	2	45	
경기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권선구 수성로 8	3,809	28	3	18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는 우리시가 임대설립하고 위탁운영

〈수원시 설립 기업관련 시설 현황〉

2014.6.1현재

(단위 : m<sup>2</sup>, 백만원)

시 설 명 (운영자)	위 치	면적	지원 액	운영 인력	입주 기업	기 능
창업지원센터	팔달구 향교로 160	1,866	280	5	47	창업자 사무공간, 편의시설 제공
창업성장지원센터	팔달구 행궁로 98	1,612	300	2	20	강소기업육성지원
벤처기업지원센터	팔달구 경수대로 464	6,663	-		16	벤처기업육성지원
1인창조기업·시니어 프라자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403	120	4	27	창업자 사무공간, 편의시설제공

- 현재 관내 대학과 기업지원 기관에서 분산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와는 별도로 우리 시가 드레스덴 산업단지 모델을 도입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특색있는 형태의 단지를 건립하여 운영
  - 우리 시가 설립한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벤처기업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분산 운영으로 인한 장단점, 경제성, 효율성 등 분석 및 개선
- 또한 드레스덴 시, 관내 대학, 지역 투자가 등 민·관·학이 협력하여 공동 설립한 사례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드레스덴의 체코, 우크라이나, 대전 테크노파크와 우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비추어 우리 시도 국제협력 사업을 통하여 선진 운영기법 도입도 바람직함.

## 1 드레스덴 미술관(舊 거장 회화관)

### □ 기관개요

- 탐방기관 :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중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old master 's picture gallery)  
드레스덴 미술관(구 거장 회화관)
- 탐방일시 : 2014. 8. 28.(목) 10시~

### □ 현 황

- 개관연도 : 1960년 재개관
  - 아우구스트 대공이 1560년에 세운 미술품 진열실에서 출발
  - 옛 동독당의 위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부 미술품이 소실(약 700여점), 소련군에 강탈됐다가 반환
- 위 치 : 드레스덴 구도심의 쓰빙거 궁전 내(회화관)에 위치
- 소장품수 :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회화작품 3000여 점
- 상설 전시작품 수량 : 750여점
- 관람객 수 : 1년 평균 500,000명
- 관람료 : 10유로 (10am-6pm) 매주 월 휴무



쓰빙거 궁전내 회화관 (구 거장 갤러리)

## □ 탐방내용



이탈리아 회화관 전시전경

위) 1694~1733 ⇒ 아우구스트 2세가 궁정건축가 르 플라(Le Plat)의 권유로 궁전 부속건물 안에 화랑을 설치한 이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의 하나가 되었음



전시장 한편에 공간구조 모델링 비치, 이해를 도움



LED 형광등사용(자외선 차단)



간접 자연광사용

○ 조명방식은 간접자연광과 자외선 차단을 LED 형광등을 사용하여 조도를 조절함

-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은 쓰빙거 궁전내에 4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르별 소장품을 기초로 회화, 조각, 도자기, 기술(수학) 관련 유물을 전시함
-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회화관은 1722년 작센 선거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재위) 1694~1733 ⇒ 아우구스트 2세가 궁정건축가 르 플라(Le Plat)의 권유로 궁전 부속건물 안에 화랑을 설치한 이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관의 하나가 되었음
- 주요 전시구분은 16~17세기 이탈리아관, 17세기 네덜란드관, 16~19세기 독일관을 중심으로 소장 전시하고 있음.
- 주요 소장품으로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마돈나』,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 루카스 크라나하 엘더의 『카타리나의 제단화』 등을 소장함
- 유럽 궁전을 이용, 리모델링한 미술관, 박물관은 대부분 비슷한 시설임을 감안 할 때 크게 특색 있는 시설 및 구조는 없었음
- 전시 공간이 회랑형 구조로 쉽게 다음 동선으로 이동하기 용이하였음
- 전시공간 내외부에 공간에 걸맞은 신고전주의 풍의 소파 및 의자를 비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며, 유명 작품근처에는 보안요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음

차단 LED 형광등을 사용하여

## ② 드레스덴 엘버티눔 미술관

### □ 기관개요

- 탐방기관 : 드레스덴 엘버티눔 [ALBERTINUM Dresden]  
미술관(신 거장 회화관Galerie Neue Meister)  
및 조각관(Sculpture Collection)
- 탐방일시 : 2014. 8. 28.(목) 11시~

### □ 현 황

- 개관연혁
  - 1887년 최초개관
  - 2차 세계대전으로 1945년 파괴, 1953년 재건
  - 2002년 대홍수이후 방수공사 진행, 2010년 재개관
- 위 치 : 드레스덴 구도심의 쾰링거 궁전에서 남서쪽으로 도보 10분
- 소장품수 :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회화 및 작품 1000여 점
- 상설 전시작품 수량 : 회화 300여점 및 조각 120여점
- 관람객 수 : 1년 평균 200,000명
- 관람료 : 10유로 (10am-6pm) 매주 월 휴무



Albertinum 건물 전경 (이곳에 신거장 회화관 및 조각관이 위치함)



층별 공간 도면

## □ 탐방내용

- 건물은 총 3층 규모로 지하공간은 수장고와 작품복원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층은 조각전시실(Sculpture Collection), 2층은 신 거장 회화관(Galerie Neue Meister)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 ○ 조각전시실(Sculpture Collection)

- 주요 소장품 : 유럽 중세 앤티크 작품, 바로크시대에 제작된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 대리석상의 캐스팅 석고작품군, 로댕의 습작 (브론즈, 테라코타) 외 최근 현대 조각작품군 등 약 200여점
- 특이사항 : 상설 전시 위주로 기획되었으며 재료 특성을 고려한 전시 구성이 인상적이었음. 아울러 지하에 조각작품이 수장 상태로 연구 및 보존처리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수장형 갤러리 구조가 인상적이었음.



Sculpture Collection 수장형 갤러리

## ○ 신 거장 회화관(Galerie Neue Meister)

- 건물의 외형과 달리 내부구성은 부분적으로 모던양식과 현대적인 화이트 큐브양식을 두루 활용하여 전시중인 소장품들과 이질감을 없앴으며 특히 1층의 갤러리 입구 및 실내높이 13미터의 대형 로비 공간은 다양한 현대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구조였음
- 중세(14세기~18세기) 회화 전시 작품군을 볼 수 있었다면 이 곳 신 거장 회화관에서는 독일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작업한 지역작가 및 19세기부터의 근현대 회화 거장(오토디스, 에드가 드가스, 빈센트 반고흐, 클라우드 모네, 뭉크 등)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음
- 전시 동선은 국적을 초월한 낭만주의 전시실을 비롯해서 추상표현주의와 드레스덴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은 서양 미술사의 교본이라 불릴만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었음
- 한편, 독일 드레스덴 태생, 현재 살아있는 화가로 가장 이름값이 높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초기작품이 다수 전시 되고 있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음



높은 층고를 확보한 로비 한편에 아트숍을 운영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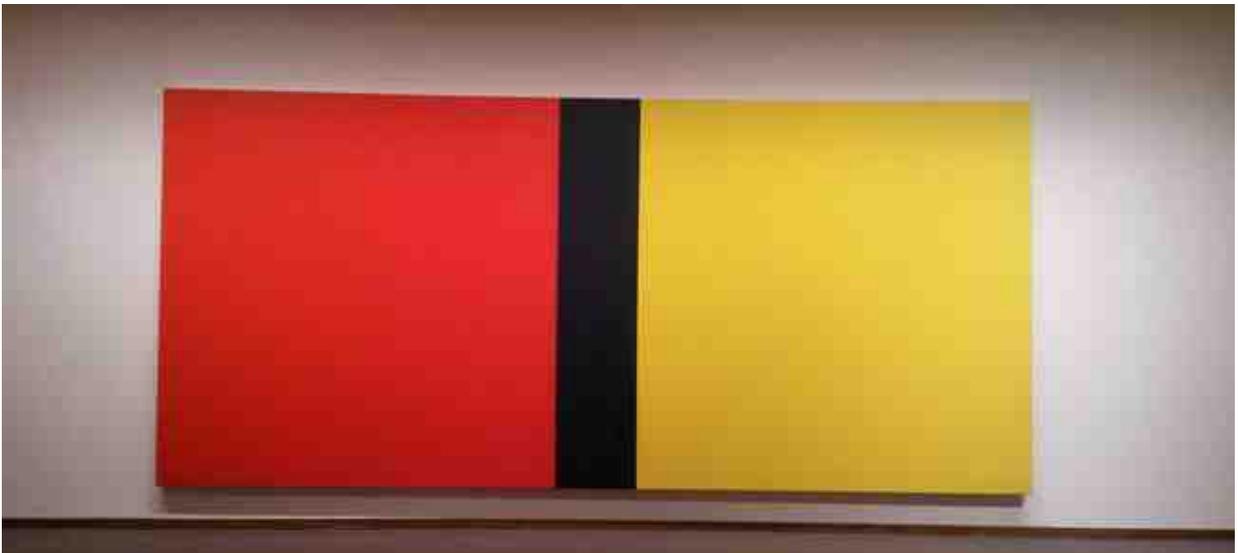
### 3 베를린 신 국립미술관

#### □ 기관개요

- 탐방기관 : 베를린 문화포럼 內 신 국립미술관
- 탐방일시 : 2014. 8. 29.(금) 11시~

#### □ 현 황

- 설립 시기 : 1968년 / 베를린 문화 포럼에 위치
- 유럽과 북미의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
- 주요작가 작품으로는,  
파블로 피카소, 뭉크, 막스 베크만, 오토 딕스, 파울 클레, 프랜시스 베이컨  
프랑크 슈텔라, 시그마 폴케,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의 작품을 소장
- 주요 소장품으로는 에른스트 키르히의 <포츠다머 광장(Potsdamer Platz)>, 바넷뉴먼의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라(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등



바넷 뉴먼의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라(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 □ 탐방내용

- 현대 건축의 거장 미스 반데어로에의 신국립미술관, 엄격하리만치 단순한 구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경이로운 비율, 당시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신고전주의 외관으로 답습하여 건립되던 시절, 고정정신을 탈피하여 건물 치장하던 장식을 제거,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완공 후, 동베를린에 있는 국립미술관과 구별하기 위해 ‘신 국립미술관’ (Neue National Galerie)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음



베를린 국립신 미술관 전경

- 많은 것을 담아 보일 수 있는 거대한 공간, 질서와 단순함을 철과 유리를 통해 표현한 기념비적인 건축작품임
- 전시공간은 수평의 지붕과 사방으로 탁 트인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수직의 커다란 유리벽이 대비를 이루고 있음.
- 건물은 언덕위에 있는데다 2층으로만 출입을 하기 때문에 1층이 마치 지하층처럼 감추어져 있어 한 개 층의 건물로 보임. 포츠다머 대로에서 보면 기단 위에 지어진 단층 건물 같지만 완만한 경사지에 들어선 미술관은 총 2개 층으로 이뤄져 있음
- 주요 작품군으로는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를 중심으로 하는 ‘디 브뤼케’ 그룹 등 독일 및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절규’를 그린 노르웨이 화가 뭉크에서, 케테 콜비츠의 조각, 파블로 피카소 등 야수파 회화, 폴 클레 등 바우하우스 작품, 막스 에른스트 등 초현실주의 작품, 이브 클라인과 바넷 뉴먼 등 1950~60년대 예술가의 작품 등이 전시됨
- 196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현대미술은 함부르거 역 현대미술관 등 다른 국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음



전시장 입구 전경

○ 신국립미술관에서 ‘전장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개관연도인 1968년 이후 소장한 작품들로 구성되었음

전시공간을 크게 특별기획전시와 소장품의 기획전이 열리는 공간으로 구분됨.

특별전시를 위한 1층의 대형 전시공간의 내부는 기둥이 없이 좌우대칭이었으며 천장은 8.4m로 높아서 거대한 공간이 필요한 설치미술 등 기획전시가 가능했음. 사방이 유리로 개방되어 있어 자연광을 최대한 받아들이며 외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구조였음



전시 전경

○ 단단한 직사각형 지붕 아래로 실내 조명이 들어오면 내부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임과 동시에 전시실의 한쪽 면은 외부 조각공원과 연결됨. 완만한 경사를 살려 내부에 자연광과 외부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차경이 인상적이었음.



미술관 도슨트의 전시 설명

## 4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 □ 방문개요

- 탐방기관 :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 탐방일시 : 2014. 8. 30.(토) 10시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전경

### □ 현 황

- 설립 시기 : 1996년 11월 (재개관)
  - 건물은 1846년 완공된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로 가는 기차역이었음
  - 1884년 새 노선이 개발되면서 열차 운행도 중단, 1906년부터 교통-건축 박물관으로 이용되다가 2차 세계대전에 문을 닫음
  - 이후 함부르크 기차역을 1996년 건축가 Josef Paul Kleihues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미술관으로 재 개관함
- 전시면적 : 6,000m<sup>2</sup>(1996년)→ 13,000m<sup>2</sup>(2004년 부분 리모델링)
- 관람객수 : 1년 평균 250,000명
- 관 랑 료 : 12유로 (10am-6pm) 매주 월 휴무

## □ 탐방내용

- 주요 소장품 : 앤디 워홀, 요셉 보이스, 로버트 라우션버그, 댄 플래빈 등  
20세기 현대미술작품 중심
  - Hamburger Bahnhof 미술관은 베를린의 국립 갤러리의 3번째 분점으로써 현대미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1960년대 이후 작품에 초점을 맞춰 작품 구입 및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상설전시 현황 : 국제적인 전위예술운동 그룹 플럭서스(Fluxus)에서 활동한 요셉보이스와 팝아트의 거장 앤디워홀의 작품을 주로 전시



역사를 개조한 미술관 내부 전경

- 초기에 이곳 소장품은 앤디워홀의 60점의 판화, 요셉보이스의 450여점의 드로잉을 비롯하여 라우션버그, 로이 리히텐슈타인, 안젤름 키퍼 등의 수준높은 작품을 포함한 E.마르크스의 개인 소장품과 베를린 국립 미술관으로부터 이관된 작품으로 이루어졌음
- 그 후 도널드저드, 제프쿤스 등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독일의 신표현주의와 신야수파 계열 작품까지 수집되고 있음
- 기획전시나 행위 예술, 토론과 강연 등의 장소로 건물을 개방하여 지역 사회의 살아 있는 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열려있으며 성인, 청소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장품과 특별전의 작품의 이해를 돕는 것임. 전시와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진행함.

## □ 종합 결과

- 유럽의 박물관, 미술관역사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함. 독일의 경우는 19세기 초반인 1828년 베를린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출발함.
-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특정 권력자의 소유물에서 자국의 이익에 치중한 내셔널리즘, 주변국 및 제3세계의 예술작품을 강탈하여 국가 자산으로 관리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음
- 독일의 현대미술관의 특징과 경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 근현대미술관 성격인 베를린의 국립신미술관은 현대미술의 뿌리가 되는 20세기 초 대표작품을 소장, 연구, 전시하면서 국립이나 연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수적 성격이 강한 소장품 프로모션(모더니즘 후반의 독일출신의 요셉보이스, 리히터 작품)과 국제미술계 동시대 우수한 미술품을 집중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상설전시하며 작품의 우수성을 강조함
  -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함부르크 반호프미술관과 신미술관처럼 건축양식부터 기존의 그것과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며 새로운 미술의 전개에 있어서 난해한 현대미술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개방성있는 열린 공간을 표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우리 수원시의 첫 현대미술관은 201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대상 교육과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의 삶속에 미술과 연결고리를 시작으로 그 기대효과는 유·무형의 가치와 경제성을 만들어 줄 것으로 사료됨

## 1 튀니지 바르도 국립 박물관

### □ 방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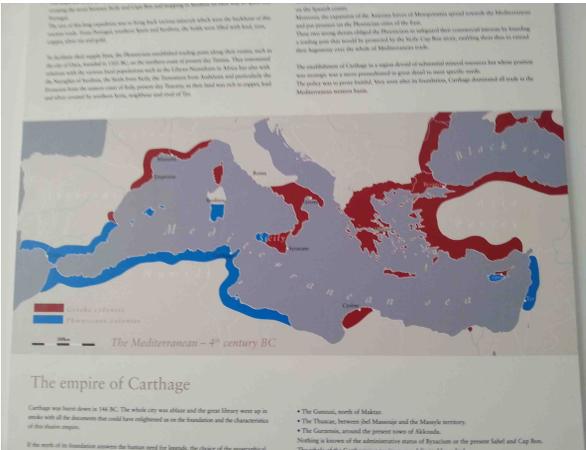
- 탐방기관 : 튀니지 바르도 국립박물관
- 탐방일시 : 2014. 8. 23.(토) 9시

### □ 현 황

- ‘튀니스의 루브르’라고 불리며, 지방장관의 집무실이었던 곳에 자리잡고 있는 바르도 박물관은 외곽에 있었으나 훗날 옮겨 소장품을 전시
- 푼시대, 로마시대, 그리스도 시대에 이르는 튀니지의 전체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로마시대 모자이크를 전시하는 갤러리는 로마의 모자이크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
- 카르타고 유적에서의 출토품,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의 모자이크, 아랍 예술품 등 폭이 넓고 충실한 컬렉션을 보유

### □ 연수내용

- 푼(Pune)시대의 조각상과 교회, 불라 레지아(Bula Regia), 투부르보 마주스(Thuburbo Majus)의 모자이크, 석상, 조각, 무구, 장신구 등을 중심으로 한 전시 내용
- 로마시대 모자이크와 마흐디아(Mahdia) 주변 카르타지, 도우가, 엘젼, 소스 등에서 발굴된 조각상과 카르타고 시대의 석상, 금빛으로 빛나는 천장, 안뜰이 있는 아랍 건축의 전시 방식
- 벽마다 각기 다른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으며 르케프(Le Kef) 모자이크, 아홀라(Acholla) 모자이크 등의 화려한 유물 전시의 내용



## □ 연수결과

- 예전 3층으로 구성되어 시대별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있었으나, 근래 새롭게 2층으로 신축 개관하면서 주제와 전시동선이 산만해진 점이 있음
- 그림에도 넓은 전시공간의 확보에 따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 압도적인 모자이크 장식의 규모와 내용으로 많은 관람객 유치
- 전시 위주의 박물관으로 교육 및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함

## 2 튀니지 카르타고 국립 박물관

### □ 방문개요

- 탐방기관 : 튀니지 카르타고 국립박물관
- 탐방일시 : 2014. 8. 23.(토) 14시

### □ 현 황

- 비르사 언덕 뒤편에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에 세워진 성 루이 성당이 있고, 성당의 부속건물이었던 가톨릭 스쿨을 국립 카르타고 박물관으로 새로이 탄생시킴
- 이 박물관에는 카르타고 일대를 내려다보는 구릉 위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석상, 유구, 조각 등으로 꾸며진 야외전시관과 수도원을 개조한 실내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짐
- 카르타고 역사상의 주요시대 생활유물 전시(페니키아, 로마, 고대기독교, 비잔틴, 아랍시대 유품 잔해)
- 페니키아 시대 묘석, 석관, 로마시대 모자이크 및 조각상 등

### □ 연수내용

- 고대 지중해의 강국 카르타고의 발굴 유적의 전시방식
- 페니키아, 로마, 터키, 이슬람 문화가 혼합된 유물의 전시 내용
- 오스만 제국 성립 과정에서 치러진 전쟁으로 훼손된 로마시대의 훼손된 유물, 특히 조각상의 전시





## □ 연수결과

- 카르타고를 굽어보는 전망좋은 장소에 위치한 박물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석조물과 토기류 위주의 전시물로 온도와 습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이지만 고양인들이 전시관 1층과 2층을 자유롭게 배회하고 있음

### 3 룩셈부르크시 역사박물관

#### □ 방문개요

- 탐방기관 : 룩셈부르크시 역사박물관  
(Luxembourg City History Museum)
- 탐방일시 : 2014. 8. 26.(화) 10:40

#### □ 현 황

- 1996년 개관하면서 혁신적인 전시 아이템으로 1000년간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역사문화와 경제와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전시
- 박물관 자리는 중세의 고고학적 흔적이 남아 있는 17~19세기 주거지 4개를 살리면서 건축됨

#### □ 연수내용

- 상설전시 1~3층까지는 룩셈부르크시의 경제, 사회, 정치, 건축적 발전과 도시 변화를 보여주는 상설전시
- 나무모형으로 각 시대별 도시 전체의 모습을 재현하고 당시 발굴 유물이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는 방식
- 4층은 기획전시실로 룩셈부르크의 변화 발전을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전시 관람





## □ 연수결과

- Bosch냉장고, Miele세탁기, 자개가 박힌 고전미 넘치는 오븐 등이 노출 전시되어 있어 생동감이 있는 편임
- 유리로 만들어진 대형 리프트 즉 파노라마 리프트는 박물관의 전체 높이와 오래 된 건물의 속살을 보여주며 관람자들에게 박물관에 대하여 매력적인 관심과 탄성을 자아내고 있음
- 조직은 총 23명으로 전문직 관장(1), 비서실(2), 안내 데스크(1), 관리직(5), 기술서비스(2) 등 관리직 11명 그리고 큐레이터(2), 문화교육(2), 기록사서(1), 멀티미디어·IT(2), 섭외·출판(3), 수집품 복원(2) 등 학예전문직 12명으로 구성됨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전시기법과 내용이 여타의 박물관과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도시역사박물관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에서 내 생일을!
  - 6~10세 어린이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생일 파티 개최, 친구 14명까지 초대
  - 황태자 또는 공주 의상을 입히고 케이크와 음료 및 뱃지 등 기념품과 사진 제공, 유료(190유로)로 흥미로운 프로그램 진행
- 특별전으로 ‘가난- 가난한 지방에서 부자국가로’ 을 주제로 1년간 장기 전시하는 등 독특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기획전으로 호평을 받고 있음.

○ 박물관의 변화 방향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근대적 박물관	현대적 박물관	전자적 박물관	미래디지털박물관
<p>보존 기술의 발달</p> 	<p>전시 기술의 발달</p> 	<p>IT 기술의 발달</p> 	<p>네트워크기술의 발달</p> 
<p>조사 연구 및 학술 활동 유물 수집 및 보존 관리 일반 전시 활동</p>	<p>모형, 복제, 작동전시물 최첨단 영상 시스템 시뮬레이션, 학습 시스템</p>	<p>디지털 콘텐츠 전시, 검색 3D 콘텐츠 제작, 제공 VR 에 의한 가상 체험</p>	<p>On/Off-Line 박물관 통합 유비쿼터스 컴퓨팅 제공 Inter-Museum 구축</p>
<p>전시공간의 한계 흥미, 체험 요소 부족 직접 방문에 의한 학습</p>	<p>물리적 전시공간 확장 흥미, 체험학습 위주 전시 관광자원으로 부각</p>	<p>사이버 전시공간 확보 디지털 복제 콘텐츠 콘텐츠 자원으로 부각</p>	<p>물리/논리적 공간 연결 객체화, 개인화 디지털 콘텐츠 커머스</p>

디지털 박물관의 다양한 명칭 : Web Museum, Cyber Museum, Internet Museum, VR Museum, On Line Museum, e-Museum, u-Museum, Digital Museum, Smart Museum

## 1 교통시스템 개선방안

- 2016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이용 편의성 증대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의 교통시스템 개선에 참고·적용할 해외 우수사례를 수집하였음.
- 방문의 해 주요핵심사업 16개중 ‘2016 생태교통 편라이딩 체험존 조성’, ‘수원팔색길 도심트레일 관광상품 운영’ 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례를 수집하였음.
- 금번 해외 탐방지 특히 독일은 노면전차, 자전거 대여시스템 등 생태교통의 참고 사례로서 아주 우수하여 수원시에 활용할 만함.

## □ 관광열차 사례 참고

### ○ 베를린 노면전차 운영사례



개요 : 독일 베를린, 인구 약 345만명  
 문제 : 동서통합 후 교통 정책, U-bahn, 버스 도입 후 노면전차 규모가 점차 줄어들음. 1994년 현대화 시작.  
 노면전차 대부분이 동베를린에 집중됨.  
 운영 : 노선 191.6 km, 22개노선  
 특징 : 1865년 개시, BVG운영, 독일최대의 노면전차 시스템으로 U-bahn 10개, S-bahn 15개, 버스 147개 노선 운영.  
 노면전차는 중심에 위치하고 타 교통수단과 연계됨.  
 봄바르디아와 공동 연구를 통해 Flexity Berlin Tram을 개발함.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문화적 패적성(어메니티) 수단으로 개발함.  
 관광·모임용, 파티용 노면전차도 운영.  
 운전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일반에 공개, 도심 녹화사업 병행하여 수행함.



- 베를린은 세계최초로 노면전차를 도입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90개 노선 630km 연장의 대규모 시스템이 운영되었지만, U-Bahn(지하철), 버스 등의 도입으로 규모가 점점 줄어들음

- 베를린은 노면전차를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문화적 쾌적성(어메니티) 수단으로 개발함. 노후화된 전차를 복원하여 관광·모임용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고 파티용 노면전차인 BERLINERFAHRBAR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노면전차 교육기관 내 시뮬레이터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노면전차 운전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베를린은 노면전차의 친환경성을 부각시키고 도심 녹화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선로녹화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연장의 1/5에 대한 선로녹화사업이 완료됨. 선로녹화사업에는 가뭄에 강하고 관리가 편한 종자들을 이용하고 있음
- 수원시가 2013년 생태교통축제 개최 및 생태교통마을을 조성하였고 2016 수원 방문의 해에서 주요사업 중 하나로 ‘생태교통 편라이딩 체험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반 사례로서 베를린의 친환경 노면전차 교통시스템을 참고하여 수원시 교통문화를 육성하고 관광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 룩셈부르크와 몰타의 계절특성에 따른 열차 형태 사례

- 룩셈부르크의 관광열차와 몰타의 관광열차는 수원시의 화성열차와 유사하게 도심을 관광하는 탈거리로서 역할하고 있으나, 계절적 특성에 따라 열차의 형태가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몰타의 관광열차는 관광지만 통과하며 1년 내내 기후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면이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노면전차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열차로 사면이 유리창으로 막혀 있어 사계절 이용하기에 유리함
- 수원시의 화성열차는 사계절성 기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사면이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계절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매연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등 이용에 한계점이 있음
- 이는 2016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 화성열차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룩셈부르크 관광열차



룩셈부르크 관광열차



몰타 관광열차



몰타 관광열차

## □ 2층 버스 도입 제안

### ○ 좁은 차로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관광객 체험 제공

- 골목길 등 차로폭이 좁은 지역의 경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사례로서, 특히 수원시내에서 관광지가 몰려 있는 화성 내 구도심은 길이 좁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2층 버스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베를린 2층버스



몰타 관광열차

## □ 보행자 편의성 제고 제안

### ○ 보도 구분의 확연성

- 보도를 용도에 따라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성을 도모함

### ○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경관조성 활용

- 보도와 차도 사이에 공간의 여유를 두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뿐 아니라, 조경을 통한 환경미화 공간으로 사용함
-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걷기 좋은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관광태세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행자나 운전자 한 쪽만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닌 보도와 차도 양방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주차시스템 개선 제안

### ○ 보도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 이용

- 주차공간을 보도 안으로 들여 차로 공간의 충분한 확보 및 차로에 있을 위험요소를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조경을 활용한 주차공간의 경관미화

- 주차공간에 조경을 활용함으로써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광경관을 해치지 않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수원시가 지향하는 생태교통 도시를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편리하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보도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의 형성이나 조경을 활용한 주차공간의 경관미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룩셈부르크 주차공간



베를린 주차공간



포츠담 시민공원 주차공간



포츠담 시민공원 주차공간

## □ 다양한 탈거리 도입 제안

### ○ 다양한 교통 수단

- 룩셈부르크 시내의 관광차, 자전거, 시티투어 버스 등이 있어 관광객의 편의성을 도모한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됨

### ○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관광객의 체험거리로서 제공

- 생태교통 측면에서도 환경에 무해한 자전거의 다양한 활용 및 전자동시시스템(전기자동차, 전동바퀴를 장착한 마차 등)을 이용한 교통시설의 운영되고 있음
- 2016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체험거리이자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다양한 탈거리 도입이 필요하며, 생태교통마을과 더불어 다양한 탈거리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독일 탈거리



독일 탈거리



Donbike



베를린 donbike



룩셈부르크 자전거 대여



바퀴부착의 다양화

## ○ 다양한 교통 수단 제공을 통한 연계관광 활성화

- 독일은 라인강 주변으로 기차, 산악케이블카, 로프웨이, 관광버스, 유람선, 트레킹,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연계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음
- 수원시가 ‘생태교통 체험 존 조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교통수단의 단순한 체험이 끝이 아니라 이동수단을 타고 가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생태교통 체험 존 내 공간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도시 사례

- 베를린은 자전거의 도시라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신호등이 정비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인정 받으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음
- 자전거투어가 길거리 곳곳에 준비되어 있으며 관광객 숙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주기도 함
- ‘콜어바이크’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자전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받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음
- 수원시가 생태교통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사례를 참고하여 자전거 이용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노인·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도시 사례

- 베를린의 관광버스는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례로, 관광지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없음
- 노인과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편리한 도시로, 도시의 설계의 기준을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한다면 2016 수원방문의 해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도시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버스 정류장 개선 방안 제안

### ○ 개폐형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계절성 극복

- 버스정류장을 삼면을 유리벽으로 둘러싸고 앞면을 개폐형으로 조성함으로써 계절성을 극복하여 이용객에게 편의성 제공함
- 사계절이 존재하는 국내 기후의 특성상 수원시도 개폐형 버스정류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 수원시 버스정류장 시설에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독일 정류장



독일 정류장

## 2 해설서비스 개선방안

- 수원방문의 해를 준비하여 새로운 형태의 해설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관광객들의 관심 및 만족도를 고취시킬 방안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새로운 형태의 해설서비스 제안

#### ○ 새로운 형식의 해설서비스 도입

- 해설서비스는 방문객들이 전시물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과정의 수단으로, 단순하게 보고 듣는 기존의 해설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여 전시물에 대한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새로운 해설서비스로 볼 수 있음
- 수원시가 제공하는 기존 해설서비스는 전시물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치고 있어 전시물에 대한 의미 전달이 부족한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해설서비스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문 목적과 방문객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설 매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탐방로를 기획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해설을 통해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직접 전시물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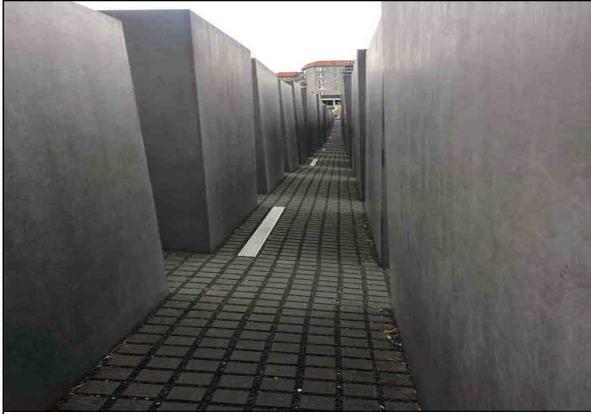


얼굴모양의 10,000개의 주철원판(낙엽)을 이용한 유대인 희생자들 고난 간접 체험



베르린 유대인 박물관 - 카디쉬만의 '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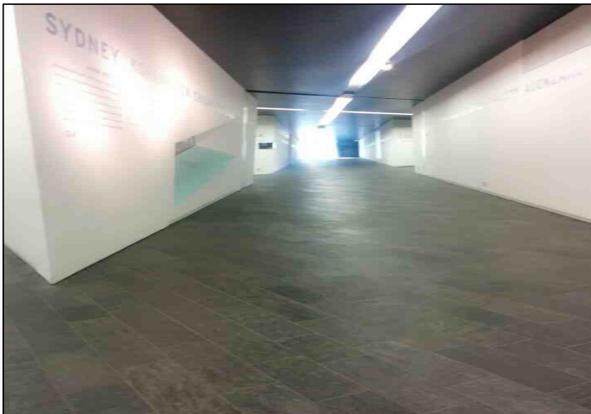
-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이나 추모공원의 경우, 지면의 경사도나 건물의 구조를 활용하여 역사적 상황에 방문객이 스스로를 대입해볼 수 있도록 하여 전시의도를 몸으로 체험하게끔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설서비스의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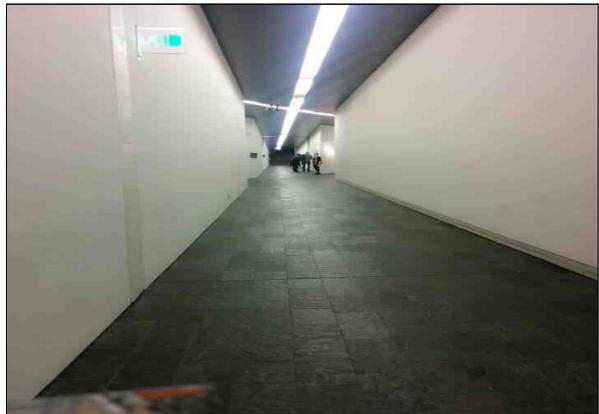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내부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내부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외부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외부

## □ 첨단기술을 도입한 해설서비스 제안

### ○ 해설서비스의 새로운 소통방식

- 입김을 불면 나타나는 글씨, 성전을 끊임없이 베껴 쓰고 있는 로봇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전시물에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켜 해설서비스로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유도함
- 수원시의 유관기업인 삼성의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화성박물관 내 전시물(예: 화성성역의궤)에 관광객의 관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입김으로 움직이는 전시물



토라(히브리율법)를 쓰는 로봇

### ○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해설서비스

- 유물의 보존, 시간의 제약, 통행량 제한 등의 이유로 방문객이 쉽게 관람하기 어려운 전시물은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해설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소통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함
- 수원시의 유관기업인 삼성의 전자기기(예: 갤럭시 탭)를 활용하여 관광해설사가 표준화된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대여 및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 및 청각적 해설의 효과 극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베를린 페라가몬 박물관 가이드 안내



아이패드를 활용한 안내

## □ 편의성을 보완한 해설서비스 제공

### ○ 해설서비스기기의 이동적인 대여 및 반납

- 해설서비스의 역할은 편의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오디오 투어 대여 지점을 관광지 내 입구뿐 아니라 중간에도 곳곳에 설치하여 대여 및 반납을 이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함
- 기존에 해설서비스기기는 대여와 반납이 관광공간 입·출구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관광하는 도중에는 이용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하여,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수원화성 및 행궁, 화성박물관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완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대인 박물관 이동식 해설서비스 기기



상수시공전 오디오 투어 안내

### 3 편의시설 개선방안

-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원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 사례를 수집하였음

#### □ 충분한 휴식공간의 제공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 확보
  - 룩셈부르크 공원 및 박물관 내 음수대, 의자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이용객들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함



룩셈부르크 공원 음수대



룩셈부르크 공원 의자

- 간이의자 보관걸이를 이용한 공간활용 극대화
  - 충분한 휴식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간이의자 보관걸이를 벽면에 설치하여 의자를 필요한 만큼 사용했다가 다시 걸어둘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칫 낭비될 수 있는 박물관 내 공간의 이용을 최대화함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간이의자

## □ 이용객을 배려하는 편의시설

### ○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된 관람방향 유도화살표

- 관람방향 유도표시를 벽면이나 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바닥에 표시함으로써 이용객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끔 쉽게 표시하여 이용객을 배려함

### ○ 다양한 이용객을 배려하는 편의시설

- 장애인이나 노인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함
-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수용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는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원화성 성곽길 주변에 충분한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춰 편의시설을 구성한다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베를린 유대인 방문객 동선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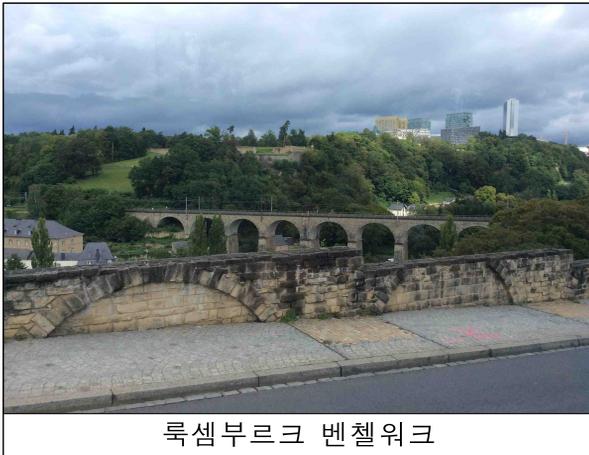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 4 관광프로그램 개선방안

○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관광아이템 및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수집하였음

##### ○ 성벽걷기 산책로 사례

- 룩셈부르크는 ‘쉬멩드 라 코르니쉬’ 라는 아름다운 산책로로 유명하며 ‘벤첼위크’ 라는 성벽걷기를 위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한적하게 산책하기가 좋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아,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례로서 참고할 만함
- 수원화성 성곽길을 걸으며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기존에 성곽길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풍경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관광공간 사례

- 몰타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다양한 지배세력의 문화가 반영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속적인 시대성이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참고할 만함
- 수원시도 큰 역사적 의미를 보유한 도시로서 정조 이후로 현재까지도 변화하고 있는 역사를 관광공간에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 ○ 골목도시 활용 사례

- 몰타는 작은 섬나라인 지리적 특성상,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많기 때문에 큰 길까지는 차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도보를 이용한 관광이 이루어짐
- 수원시도 관광지가 밀집된 화성 내 구도심 지역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많은 특성상, 도보관광객이 많으므로 골목을 활용한 볼거리, 할거리를 구성하여 관광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관광서비스의 표준화 작업

- 튀니스는 풍부한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며, 호텔, 식당, 택시 등 관광서비스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수용에 대비한 관광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보완 및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 ○ 도시 경관을 활용한 관광매력 요인 개발 사례

- 튀니스의 ‘시디 부 사이드’ 지역은 파란색과 흰색을 이용한 건물 외관 정비를 통해 관광객을 이끄는 매력요인으로 이용함
- 도자기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역사인물들의 행렬도를 그려 넣음으로써 매력적인 관광장소로 발굴된 사례임
- 수원시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수용에 대비하여 도시경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행렬도의 경우 정조의 능행차도를 활용하여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튀니스 시디부사이드 민속마을



드레스덴 벽화\_군주들의 행렬

## ○ 상시프로그램 운영

- 축제는 특성상 일시적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 연극과 같은 상시 프로그램 제공하며, 과거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항상 운영되고 있음
- 수원 방문의 해가 가진 한시성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참고할 사례로서, 방문의 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함



몰타



드레스덴

## ○ 관광매력물 개발 사례

- 성당 내에 촛불을 켜는 일에 일정금액(작은 초 0.5유로, 큰 초 7유로 등)을 지불하게 하여, 성당은 수입을 창출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개인적인 추억이자 성당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비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도록 유도함
- 수원시도 화성성곽 및 행궁에 사용되는 기와를 봉헌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드레스덴 성당 초 기념품



드레스덴 성당 초 판매기

## □ 관광기념품

### ○ 지역 특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기념품 자동판매시설

- 초콜릿, 기념주화 등 기존에 볼 수 있었던 관광기념품뿐 아니라, 지역의 상징물인 곰을 이용한 곰 젤리가 유명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동판매대를 설치함으로써, 관광지 내에 편의시설이자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활용됨
- 관광기념품은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큰 부문이므로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시만의 특성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꼭 기념품점에 가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대를 설치하여 관광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함



포츠담 상수시공전\_초콜릿 기념품



포츠담 상수시공전\_초콜릿 기념품



포츠담 상수시공전\_도자기 기념품



포츠담 상수시공전\_성냥갑 기념품



룩셈부르크\_기념주화 자동판매대



베를린 유대인박물관\_곰 젤리 자동판매대

## 수 기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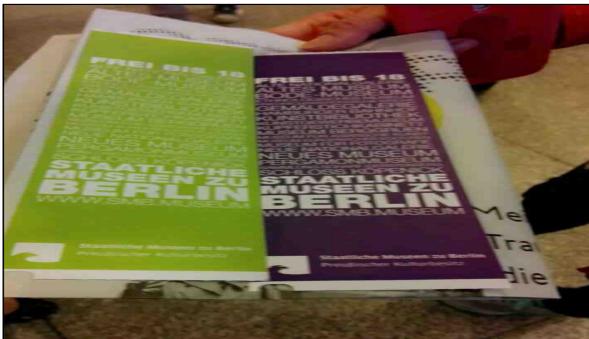
### □ 마케팅 전략

#### ○ 색을 다르게 한 티켓으로 소유욕을 일으킴

- 베를린 박물관의 경우 같은 용도의 티켓도 색깔을 달리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소유욕을 불러일으킴

#### ○ 사진촬영 허가 티켓 판매

- 포츠담 상수시 궁전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나, 특별한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에 한하여 사진촬영을 허가하여 관광지외 관광객 모두의 편의성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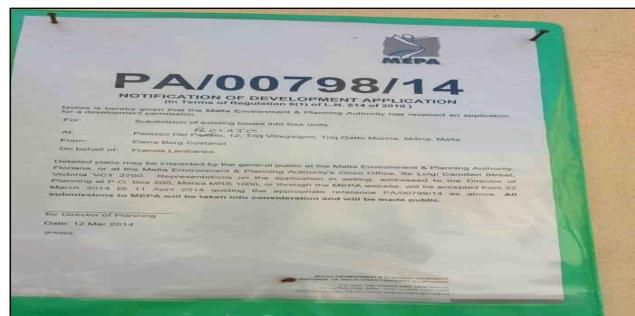
베를린 신 국립미술관  
\_ 색을 다르게 한 티켓



포츠담 상수시궁전\_  
사진촬영 티켓을 구매한 관광객

#### ○ 문화관광자원 보존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

- 몰타의 읍디나 지역은 도시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나, 현재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등 고유건물이 수정될 경우 이를 명시하게 되어 있음
- 과거의 건물과 현재의 주민이 공존하며 지역의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처럼 수원시도 수원만의 ‘지역다움’을 구성하기 위해 자원의 보존과 주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 것임
- 또한 기존 수원화성 내 개발제한 등의 규제에 의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몰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몰타 읍디나